

교회 목록

신앙관 예배
창국일포 앙성
민족총회와
세계 천로
이웃 사랑

주간 총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38:1)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대한예수교 **총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2 총현교회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김성관 편집인:노광헌 편집국장:이형수

주의 만찬(3)

"주의 죽음심음"

하나님의 재창조를 의미한다 - 성전의 식탁에서 그의 죽음심음에 대한 선언은 하나님의 창조와 재창조를 의미하는 일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가장 많은 은혜를 누렸듯이, 성만찬을 통해서 드러난 그의 죽음심음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 뿐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참된 연합을 이루게 하심을 약속하게 한다. 그러므로 성전의 식탁은 우리를 창세기대로 되돌아가게 하고, 요한계시록으로 밀려가게 한다. 처음 인간의 창조하시고 타락한 인간을 새롭게 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하나님의 재창조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한다. 어떤 인간의 노력에도 그리스도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킬 수 없다. 그러나 주님의 손으로 베푸시는 성전의 식탁에서 그의 죽음심음은 그의 몸과 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현신이다.

하나님의 고통을 의미한다 - 성전의 식탁에서 우리는 세상의 상실에 대한 하나님의 고통과 그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아들을 희생시키신 하나님의 고통을 기억하게 한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헌신, 자기 자신이 만든 인간을 심판의 불구덩이로 몰아넣어야 하는 외로운 '참조주의 고통', 그리고 이러한 세상을 구원하려고 자기 아들을 죽을 가운데로 내몰았던 '성부의 고통'이 성전의 식탁에 호소하고 있다. 그리고 죽음심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의 고통'이 공존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만찬은 우리로 하여금 완전하게 성취된 이차의 예언을 기억하게 한다. 가장 고통스러울 가운데 단절된 어린양을 생각하게 한다. 그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회개함을 나타내기도 하셨다. 잔을 떠나게 해 달라고 요청하셨으며, '열리 엘리 리마 사바드나?'라고 외치셨다.

실천적 사랑을 의미한다 - 그러므로 성전의 식탁에 가득찬 하나님의 본물과 심안이 우리에게만 구속과 용서로 변화함을 기억해야 한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그 몸으로 감당하신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았다는 증거이며, 지지도 주께서는 성전의 식탁을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는 것이다. 그분은 땅에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보다 자나에게로 오라고 하셨다. 이제 그분은 마지막 만찬에서도 초자연적인 의미있는 식탁으로 우리를 초청하셨다.

참사와 더 깊은 의미 - 그의 죽음심음은 세상인과 종교지도자들에게는 승리를 의미하였다. 주님의 죽음은 빌라도와 정치와 권력된 종교지도자들에게 권세와 승리를 보장했던 확인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생애 권력과 정치, 그리고 종교적 죽음에 관하지 않았다. 주님의 죽음은 종교인들의 비만에 의한 죽음이며, 정치인들의 권력에 의한 죽음이었다. 비록 종교적 죽음이었지만, 하나님의 재창조를 이루시는 죽음이고, 세상의 모든 죄를 क्षीया하는 죽음이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권이 재현되는 괴로움도 가져왔지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맺게 하는 죽음이었다.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위해 수치를 굴욕을 받고 완전히 파멸되는 죽음이었지만,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신 단번에 드러나신 자로써 완전한 제물이 되신 죽음이었다. 그리고 그의 죽음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전이 되었다. 성전의 식탁에서 이 진리가 그의 죽음심음을 통해 드러난다.

"오실 때까지"

오신다(재림) - 주님은 성전의 식탁에서 재림을 약속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의 재림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 성전의 식탁에서 재림에 대한 언약을 확인할 때, 우리의 믿음은 강화된다. 분명히 알 것은, 그리스도께서 재수하셔 오는 신앙은 오순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와 동시에 미래에도 존재하는 것을 생명을 믿어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분의 죽음심음은 결국 영원한 공국적인 승리와 개성의 삶을 예언하는 것이다. 이러한 성전의 식탁에서 전한 재림에 대한 주님의 믿음은 재림이라는 자를 불러주신단 말뿐이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심 것보다 다시 살아나실 것, 그리고 재림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셨다.

재림은 사랑을 만족시킨다 - 그래서 재림은 주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만족시켜준다. 믿음은 우리를 위해 주님께로 말로 형성할 수 없는 고통과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을 돌아보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성전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대안적으로 다시하여 받게 된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인하여 하며, 우리의 삶을 낙실하고 충성을 하게 하는 힘이 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대한 약속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에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속주자는 사랑이 그리스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향한 것이다. 다 그간 주위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받는 것이다. 그러한 사랑으로 이제는 남을 사랑하게 되었다. 기억하라, 주의 성전에서 십자가에서의 죽음심고 재림은 뭘 수 없는 관계이다.

재림은 교화에 소망을 준다 - 또한 성전의 식탁에서 확인하는 재림에 대한 약속은 우리에게 소망을 불러일으켜 준다. 주님의 재림이앞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온 교회가 있는 소망이다. 하늘의 것이 될 오실 때 천국은 영원하게 되며, 그 소망 때문에 생명을 버려야만 하신다고 한다. 죽음 저편에 있는 생명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그러는 날에 대한 모든소망이 도덕적으로 인간에게 있다. 인간이 지니는 마음대로 다스릴 수 없음과 사회적 타락, 세계적 죄악의 광명함을 생각하면 이 모든 것을 통치할 왕의 세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진하는 것"

진하는 것(재림) - 바울은 주의 죽음심음을 오실 때까지 전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성전을 말하면서 주의 죽음심음을 기억해야 할 것과 함께 주의 죽음심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있다. 달리 말하자면, 성전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죽음심음으로 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심음을 전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의 종말론에는 주의 죽음심음이 그 중심이다. 복음이라는 것은 선한 사람의 생애이다. 선한 생애의 고백은 바로 그의 어떤 윤리적행동에 의해 살려진 것을 말한 것이다. 복음이란 선한 사람의 죽음이고 그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종말론은 용서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그는 자신을 위하여 그의 생애를 희생하는 것을 깨닫고 겸손해진 사람이다. 성전의 식탁에서 그의 죽음심음이 자신 때문임으로 인식하게 되며 겸손해진다. 그러므로 주님의 성전에 참여하는 모든 믿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죽음심음의 현상에 믿음으로 이르러야 하며, 그것을 보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십자가에서 죽음심 그리스도들을 감동하게 한다.

그리스도의 죽음심음을 전해야 하는 것은 의무이다 - 성전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죽음심 그리스도를 전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성전을 대할 때마다, 그가 죽음심 이유를 세상에 전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그렇다. 성전을 받은 것은 믿는 자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다. 믿는자가 성전을 받은 자

무엇을 기념할 것인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음심음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고전 11:26)

들은 그가 죽음심 이유를 세상에 전해야 할 엄격한 의무를 가진다. 이 의무는 단순한 명령이다.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그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확신하는 그리스도인이려면, 우리는 기꺼이 그 부활을 위해 그가 될 것이다. 그렇게 주의 죽음심음을 전해야 하는 첫수와 기간은 생전이 없다. '하일 때까지' 그 일을 기억하고 전해야 하며, '오실 때까지' 멈추지 말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행해야 할 의무이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심음을 전하는 것은 교회와 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의무이다 - 주의 죽음심음을 전하는 일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죽음심음을 전해야 할 일을 망각하게 될 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배척한단 세상과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생각해 보라,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행하시면서 자신의 죽음을 말하고 계실 때, 밖에서는 세속적 성공과 번영을 기대하는 자들, 예수에 대한 질투와 질망으로 가득차고 그를 죽이고자 조직을 만들고 음모를 꾸미는 자들로 가득차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를 겨우 온 삼십 정도의 가치로 여기고 있었으며, 가장 거룩한 주님의 식탁을 깨뜨리려는 악한 마귀의 군대들로 타락해 버렸다. 마귀는 성전의 식탁에서 공갈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예수의 죽음심음에 대한 가장 대적인 세속의 가치를 채워주려 했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심음을 기억하지 않는 성전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의 식탁이 아니다. 그러므로 성전의 식탁에서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인의 죽음심음을 전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의무요 명령이다.

십자가의 주위 (마 27:35-44)

십자가의 역설적인 의미

십자가에는 죽음의 의미 있으나, 생명이 존재한다. 십자가에는 심안이 있으나, 축복할 수 없는 사랑이 존재한다. 그리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다가가 지물되는 장소였으나,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은혜의 장소이기도 하다. 또한 십자가는 인간이 악을 행한 장소였으나 하나님의 가장 선한 사랑이 존재하는 곳이며, 세상의 노로 바라보는 것은 가장 추악한 장소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가장 놀라운 자비의 장소이기도 하다. 이 역설적인 의미를 가진 십자가 앞에서 인간의 존재가 규명된다.

십자가 주변에 있는 자들

주께서 죽음심 십자가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마 27:35).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십자가는 종교지도자들, 온 세상을 무력으로 정복한 로마의 군대들, 그로 세상의 길을 열었던 거짓 왕들과 불완전 제사장, 그리고 굶주린 마음이 변해서 메시아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백성들, 그들은 주님 십자가 주변에 있었다.

십자가 주변에 있던 자들 가운데는 유대의 종교지도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서 예수를 죽음으로 내몰았(26:55).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이 유대에게 실 권리와 생각했다. 그리고 십자가로 행동했다. 그들은 예수를 마름조 종중(26:68). 그러나 자신들의 목적을 성취시키는데 달랐지만 거짓 유대에게 죄를 떠맡겼(마 27:4). 구약에 나타난 언약을 몰랐지만, 구원을 찾고 구주를 희롱하기까지 했다(마 27:41~43). 그리고 부활에 대한 믿음을 잃고도 무덤을 지었고, 그 자들을 돈으로 매수하기까지 했다(마 28:11~15). 주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회심할 무렵이고, 독사의 자식들이었다.

주께서 죽음심 십자가 주위에 청과 갈과 세상의 권력, 그리고 뜻과 양심을 가지고 가장 광범한 연극을 하던 로마의 군대가 있었다. 그들은 주님의 뜻을 버리고 호풍을 받았다. 거기 연극관을 왕관으로 하고 쓰윽으며, 갈대를 손에 들러주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했다(마 27:27~31). 혐오스럽게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악한 면을 보였다.

주님의 십자가의 주위에 빌라도가 있었다. 그는 전에는 양심보다 단지 로마의 법과 따라 행동하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를 심판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리고 그는 갈데의 시건을 거쳐 결국 세상의 권리와 권력 때문에 전심을 외면하는 타협의 길을 걸었다(마 27:24). 세상의 권력에 앞섰던 그는 자신을 외면하는 가장 비참한 지도자였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에는 스승을 따라 남긴 주도가 있었다. 그는 주님을 배반한 후에 그의(26:48)에 빠졌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하고 자살했다. 인간의 죄를 사함으로 해결하려는 가장 암시적인 것 같으나 가장 간단한 거짓 유대 십자가 앞에 있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에는 어리석음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주의 죽음심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들 있었다. 십자가 주위의 두 집(마 27:44) 이들은 사탄의 죄악을 자진히 선포하고 낙담하였었다. 그들의 운명은 사탄의 세운 벼에 의해 결정되었다. 그러나, 그들 중 한 강도에게 낙담이 허락되었다. 한 평생 살아온 삶에 대하여 패배자로 결정되었지만 그 순간에, 그는 놀라움과 감정이 나뉘어 이로 복된 죽음을 얻었다. 그 강도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가장 위대한 영혼을 받들 복된 자가 되었다.

주께서 죽음심 십자가 주위에 풍광하는 비도마가 있었다(마 26:75). 그는 절대로 주님을 배척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순신자로 깨뜨렸다. 그러나 그가 통곡하며 바라보다 십자가에는 부활이 있었고, 용서가 있었으며, 주님의 영원한 사랑이 놓여 있었다. 그는 누구보다도 요한계시록 13의 운송을 기쁘고 기뻐한 사람이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죄들이나 우리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요일 1:9)

십자가에 앞에서 발견되는 인간의 존재

그리스도인들은 뿐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대하여 유익과 누구인가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십자가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스도인도 아닌 십자가는 믿음으로 바라보기 못하는 자들은 어리석게도 멸망을 향해 달리는 자들이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의 사랑과 은혜와 돌보심을 얻은 천국적 복을 지닌다.

New Day

(Genesis 32:22-31)

*"And as he passed over Penuel the sun rose upon him,
and he halted upon his thigh."*

Jacob's life was filled with nothing but trouble. All his life, he had trouble inside and outside. He had trouble with his neighbors, family, brother, father-in-law, and brother-in-law. His life was just full of trouble. Why? The reason was not because of other people. He was the problem. It was his fault that trouble surrounded him.

Jacob was a deceiver. He tricked his brother for his birthright, and even stole his brother's blessing by deceiving his father (see Gn. 27:36). Even his name, which means "trickster" or "supplanter", described his character. When he worked for his father-in-law for some twenty years, he practiced funny business. His whole life was like that. He continually deceived other people.

Although he was always causing trouble for himself and others, the important thing, even though he was in trouble (especially whenever he was in trouble), was that Jacob was one who prayed. Remember when he escaped from his father-in-law? He prayed and the Lord answered, "Return to your country and to your relatives, and I will prosper you" (Gn. 32:9). When he remembered Esau's threat, he prayed "Deliver me, I pray, from the hand of my brother, from the hand of Esau; for I fear him, that he will come and attack me and the mothers with the children" (Gn. 32:11). When he was left alone, soon to face Esau, he talked to God. (v. 24). God answered him and said, "What is your name" (v. 27)? His pride had to disappear. He had to explain his name! Even while he was struggling and crying out to the Lord with a broken bone, he said, "I will not let you go unless you bless me" (v. 26). The question, "What is your name?", was shameful. Jacob had to answer, "I am liar." What did God say after Jacob prayed? He said, "Your name shall no longer be Jacob, but Israel; for you have striven with God and with men and have prevailed" (v. 28). Amen. Jacob continued to pray. He asked God, "Please tell me your name" (v. 29). In other words, Jacob prayed when he was in trouble and he continued to pray. That's an important key.

When Jacob received peace from God through prayer, he also made peace with his brother. The Bible tells us, "Therefore, having been justified by faith, we have peace with God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Rom. 5:1). Amen. Through prayer with Jesus Christ we receive peace. When you look at Genesis 33:4, "Then

Esau ran to meet him and embraced him, and fell on his neck and kissed him, and they wept", you can see the wonderful outcome of Jacob's prayer. There's evidence. Can you believe Israel hugged his own brother? Yes, he made peace with God. No more did he cling to his own things. Jacob was bad before, now whatever he had he gave to his brother. No more stinginess. Earthly things held little importance. Look at Galatians 5:22-23. "But the fruit of the Spirit is love, joy, peace, patience, kindness, goodness, faithfulness, gentleness, self-control; against such things there is no law." Amen. When you receive the fruit of the Holy Spirit, peace and love naturally flow through you. Let's remember, "Let the peace of Christ rule in your hearts, to which indeed you were called in one body; and be thankful" (Col. 3:15). Amen.

"Now the sun rose upon him just as he crossed over Penuel, and he was limping on his thigh" (v. 31). A new day came to Jacob, "the sun rose upon him". Aren't those beautiful words? Something totally different than the past years of his life came upon him. Some twenty years prior, Jacob had a dream in the night at Bethel about a ladder, now in the same place, but in the morning, he isn't dreaming. His brother forgave him. There is reconciliation. He gave many earthly gifts to his elder brother, not caring that much for earthly things. Now, he is ready for new days. God's light shined upon him. He saw his own sin and confessed. He was forgiven. God gave him grace. The radiance and brilliance of such a gift shined gloriously on such a fine day.

My dear friend, this 21st century has darkness all over, but whoever has problems, whoever prays and makes peace with God; they will spiritually find a new day. Amen. They will hear Jesus' voice calling, "Follow Me,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Jesus tells us, "ask, and it will be given to you; seek and you will find; knock, and it will be opened to you. For everyone who asks, receives; and he who seeks, finds; and to him who knocks, it will be opened" (Lk. 11:9-10). Amen. "By faith Jacob, as he was dying, blessed each of the sons of Joseph, and worshipped, leaning on the top of his staff" (Heb. 11:21). In his old, dying, and ending life, he blessed other people. He became a blessing person, not a complaining and crying person. 🙏

새로운 날 (창 32:22~31)



김성관 목사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분쟁을 일으키는 자, 야곱

야곱의 모든 생애를 돌이켜 볼 때, 그는 안팎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웃들, 가족, 형제, 장인, 그리고 처의 형제들과 다투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다른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야곱 자신이 문제였습니다. 언제나 문제에 둘러싸여 있었던 것이 바로 그의 결점이었습니다.

속이는 자, 야곱

야곱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는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아야 할 축복까지 가로챘습니다(창 27:36). 그래서 ‘속이는 자’ 또는 ‘악탈자’라는 의미를 가진 그의 이름은 그의 성격을 잘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20여 년간 장인의 집에서 일할 때에도 아주 재미있는 장사를 벌였습니다. 그의 모든 생애가 이와 같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속였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야곱

그는 언제나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괴롭혀 하는 원인 제공자였지만,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야곱은 고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특별히 시련을 겪을 때는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장인의 집에서 도망치던 순간이 기억나십니까? 그는 기도했고, 주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였나이다”(창 32:9). 그가 자신을 원망하던 ‘예서’의 위험이 다시금 떠올랐을 때,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예서의 손에서 나를 건지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옵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나나이다”(창 32:11). 마침내 그가 홀로 남았을 때, 물론 잠시 뒤엔 예서를 대면하게 될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24절).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셨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나?”(27절). 그의 고난은 소멸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설명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뼈가 부러지도록 하나님과 씨름하고 울부짖으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26절). 사실 “네 이름이 무엇이나?”라는 질문은 그에게 수직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나는 거짓말쟁이입니다”라고 대답해야만 했습니다. 야곱이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28절). 야곱, 야곱은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께 요구했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29절). 달리 말하자면, 야곱은 그가 어려움에 놓여 있을 때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핵심입니다.

참된 평강을 얻은 자, 야곱

야곱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평강을 누리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는 형제와도 화평을 맞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롬 5:1).

야벳,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화평을 얻습니다. 창세기 33장 4절을 보십시오. “예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맞기고 그와 입맞추고 피차 우니라”. 야곱의 기도가 놀라운 결과를 가져다주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형제의 목을 꼭 껴안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는 자기의 소유에 매달리거나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총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의 형에게 무엇이란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세상적인 것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22~23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야벳,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받게 될 때, 저절로 평화와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골 3:15). 야벳.

은혜의 새로운 날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31절). 그의 머리 위로 해가 돋는 새로운 날이 야곱에게 이르렀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그의 인생에 있어서 과거와는 전적으로 다른 그 어떤 것이 야곱 위에 임하였습니까. 약 20여 년 전에, 야곱은 뻔뻔에서 한밤 중에 잠을 자다가 사닥다리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같은 장소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한밤이 아니라 아침이었고, 그는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그의 형제는 그를 용서하였습니다. 화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세상적인 많은 선물을 그의 형에게 주었고, 이제 더 이상 세상적인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새로운 날을 살아가기 위한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그 위에 비추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보았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평강과 빛과 같은 은총이 유쾌한 날에 영광스럽게 비추어졌습니다.

축복의 사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1세기는 모든 것을 위 여 두움이 덮여 있고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들은 영적으로 새로운 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야벳, 그러한 이들은 예수의 부르심을 듣게 될 것입니다.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눅 11:9~11). 야벳,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쉼배하였으니”(히 11:21). 그가 놓여서 인생의 마지막을 장식할 때에, 그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불평과 낙망의 부르짖음에서 떠나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른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

2002 충현교회 단기선교 나라소개



우리가 갈 곳, 찾아야 할 사람들

지난 5년간 충현교회에서는 단기선교를 위해 수많은 성도들을 교육하고 파송했다. 단기선교사역을 직접 경험하며 사역한 충현의 일꾼들의 실제적 사역을 바탕으로

이번 2002년 충현교회 단기선교사역에 필요한 부분들을 점검해 보았다.

앞으로 주간충현에서는 '우리가 갈 곳, 찾아야 할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2002년 충현교회 단기선교 사역이 마칠 때까지 단기선교팀들이 사역할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단기선교에 직·간접적으로 참가하는 충현의 성도들이 나라에 대한 더욱 분명한 이해가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또한 '단기선교, 꼭 알아야 할 일들'이란 난을 신설하여, 단기선교 사역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점들이나 선교비 사용 및 회계보고 작성법과 보고서 작성법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는 아래와 같다.

1. '우리가 갈 곳, 찾아야 할 사람들'의 제제 계획



여기서는 올 한 해 동안 우리 충현교회 단기선교팀이 사역할 나라에 대한 소개가 연재된다. 지금까지 계획되었던 일반적인 나라소개에서 더 깊이 들어가 단기선교팀들에게 정말 필요한 내용을 게재하여, 지원자들이 자신의 달란트에 가장 알맞은 선교방법을 찾아 기도하며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한 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사역을 계획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비효율적인 일이다. 이에 각 단기 선교팀은 사역의 방향에 따라 좀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한 지역이나 지방을 사역지로 결정하고 사역 대상과 자료를 더 조사하고 연구해야 할 것이다. 후속 사역 또한 사역의 계획의 한 부분이므로 사역 방향에 따라 어떤 후속 사역

이 가능한지도 소개할 예정이다. 그러나 우리가 제시하는 정보는 각 팀이 참고할 사항이지 결정 사항은 아니다. 각 팀의 심도 있는 또 다른 조사 과정으로 충분히 바뀔 수 있다. 소개될 나라의 순서는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충현교회 단기선교팀의 출발 날짜에 맞추어 소개할 예정이다. 소개의 방법도 다양한 시도로 이루어진다. 지난 5년 동안 꾸준히 사역이 이뤄진 나라에 대해서는 그 나라에 다니는 사람들을 패널리 활용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주간충현 '우리가 갈 곳, 찾아야 할 사람들'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역종류▶



단기선교에는 많은 사역방향이 있다. 그러나 그 사역 방향은 어떤 관점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여기서는 그 나라에서 가능한 사역의 종류를 몇 가지 소개하여 단기 선교팀들이 사역방향과 대상을 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예를 들어 식자율(글을 읽을 수 있는 비율)이 낮거나 노병전도가 금지된 나라에서는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곳에서는 인형극이나 개인 교제, 민박을 통하여 복음의 접촉점을 찾을 수 있다. 반대로 식자율이 높은 나라에서는 후속 사역으로 문서 사역이 또한 가능하며, 전도지와 성경책 배분이 중요 사역의 방향이 될 수 있다.

또한 팀 구성원의 달란트를 고려하여 의료 사역, 문화 사역, 복지 사역 등의 중심 사역이 될 수 있으며, 그 나라 인구 구성비를 고려하여 어린이 사역 중심 혹은 캠퍼스 사역 중심을 전략의 방향으로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라에 대한 객관적 정보▶



단기팀이 사역할 기간의 날씨(지역마다 차이가 있음), 날씨와 문화에 따른 복장, 주요언어 및 가능 공용어, 생활조건(거주지 및 음식), 경제여건, 사회구조, 문화, 종교적 특수성 등이 게재된다.

2. '단기선교, 꼭 알아야 할 일들'



- ① 충현교회 단기선교 방향성
- ② 단기선교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 ③ 현지인들을 대하는 마음 및 태도
- ④ 그들의 필요를 알아야 한다.
- ⑤ 단기선교의 결과 몇 명 전도했나요? 몇 명 회심했나요?에 관하여
- ⑥ 물처 다니는 한국인(현지인)을 만나려면 혼자 되어야 한다)
- ⑦ 성경적인 선교비 사용이런?
- ⑧ 왜 구체적인 준비를 해야 하나(프로파일 작성의 필요성)
- ⑨ 상황화 / 구속적 유비에 관하여
- ⑩ 혼잡주의를 조심하라
- ⑪ 미전도 종족이런?
- ⑫ 후속 사역이런?

* '단기선교, 꼭 알아야 할 일들'은 단기선교 특성상 그 순서가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 11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1 구속언약

우리는 본 강좌의 첫 부분에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행위언약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다른 아무 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다만 그 명령에 대한 완전한 순종만을 언약의 조건으로 제시하셨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파기함으로 하루 아침에 죄인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그런데 놀랍고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언약을 어김으로 죄악 중에 빠졌던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에게 사랑의 손을 먼저 내밀어 주셨다.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은 두 가지의 언약으로 나타나는데 '구속언약'과 '은혜언약'이다. 구속언약은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의 대표인 성자가 당사가 되고 또한 동시에 성자는 언약의 보증인이 되는 언약이다(히 7:22). 이 언약에서 성자께서는 범죄한 인간의 죄를 자발적으로 대속하시고, 성부께서는 그것을 조건으로 구속의 축복을 성자를 통하여 택한 자들에게 주며 더불어 성자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겠다고 언약을 맺으셨다. 그러면서 성부는 이 언약에서 성자에게 몇 가지 특별한 사항들을 요구하셨다. 그것은 첫째, 성자 하나님에 최없이 여자의 몸에서 탄생하지만 인간의 언약성을 취해야만 한다는 것이며(갈 4:4,5; 히 2:10,11,14,15), 둘째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율법보다 우월하시지만 자신을 율법 아래에 두는 것이었다. 즉 율법의 요구에 대해서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고, 그 공로로써 신 백성들을 위하여 영생을 확득하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성자의 구속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자기 백성들은 죄사함과 영생을 얻도록 하셨다. 결국 이 언약으로 인해 성부께서는 성자를 세상에 보내셨고(요 3:16), 성자로 하여금 언약의 조건에 따라 인간의 죄로 인한 고난과 죽음을 당하게 되셨으며(롬 3:26), 언약의 약속에 따라 부활 승천케 하여 성부의 우편에 앉히시고(행 2:32)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교회를 교훈·지도·보호하게 하심으로(요 14:26) 언약을 이루셨다. 물론 성자의 제법과 심판을 통하여 성자와 택한 자를 영화롭게 하심으로(엡 5:16,12) 구속언약을 최종적으로 완성하신 것이다.

다음 주에 계속 (이성욱 목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중심으로 한 행적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에 임하신 후,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사역을 행하시면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다. 부활주일 을 맞이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전후하여 있었던 일 들을 말씀과 함께 살펴보고 이해하자.

죽으시기

승리일성(눅 19:29-44).

고난주간

월요일 -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마 21:18-19). 성전을 정결하게 하심(막 11:15-18).

화요일 - 예수님의 권위를 의심함(눅 20:1-8). 성전에서 가르치심(눅 20:9-21:4).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음(요 12:2-11).

수요일 - 예수를 죽이려는 음모(눅 22:3-6).

목요일 - 마지막 만찬(눅 22:7-10). 제자들을 위로하심(요 14:1-16:33). 겟세마네 기도(눅 22:40-46). 체포당하고 심문받으심(눅 22:47-23:25).

금요일 -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심(눅 23:26-49). 장사지냄(눅 23:50-58).

부활주일

반무덤(눅 24:1-12).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봄(요 20:11-18). 예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심(눅 24:13-35). 열 제자에게 나타나심(눅 24:36-43).

첫 주간의

열한 제자에게 나타나심(요 20:26-31).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심(요 21:1-25).

40일 후

하늘로 승천하심(눅 24:44-53).

부활의 발견

권요셉 (청년부)

고등학교 시절 절친한 친구 중에 여호와의 증인이 있었다. 서로 글을 나누 는 친구라 친했지만, 종교 문제가 항상 부딪혔다. 그가 주장했던 부활에 대한 고리에 반박하지 못했던 기억이 있다. 그는 부활은 육신이 다시 사는 것이 아 니고 영혼이 다시 사는 것이라 했다. 그렇지 않다면 화장한 사람이나 고기밥 이 된 사람, 전쟁 때 산산조각 난 사람은 어떻게 부활하겠느냐는 것이었다. 나 도 그의 말이 그럴 듯하여 수긍하고 말았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 “어리석은 사람” 이 라고 훈계를 한다(고전 15:36). 왜냐하면 말에 뿌린 씨앗이 새싹으로 변화되 는 과정을 다소라도 관찰한 사람이라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부활하게 될 것인 지 넉넉히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전 15:36-37). 씨앗을 뿌리면 씨앗은 썩 고 그 대신에 새싹이 난다. 그러나 이 씨앗과 새싹은 별개의 것이 아니며 새싹 이 나기 위해서는 먼저 씨앗이 죽어야 한다. 씨앗이 죽는다고 해서 씨앗의 형 태가 아주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씨앗의 형태가 새싹의 형태로 변화된 것뿐이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자연계의 현상을 통하여 죽은 자의 부활을 설명하고 있다. 씨앗에도 여러 가지 씨앗이 있듯이 몸에도 혈육의 몸과 부활의 몸이 있 으며 이 혈육의 몸과 부활의 몸 사이에는 엄연한 구별이 있다는 것이다(고전 15:39). 그리고 사람에게서는 혈육의 몸이 있을 뿐이나 주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몸의 형체가 완전히 변하여 부활의 몸을 얻게 된다(벧 3:21). 또 “죽은 자의 부 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심되 썩던 것으로 심고 영광된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 의 몸으로 심고 심령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을즉 또 심령한 몸이 있느니라”(15:42-44)라고 설명한다. 육의 몸이 산산조각이 날지라도 씨앗이 새싹이 되듯 육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육의 부활은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다. 부활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 는 것이기 때문에 과학적이고 경험적인 견해로는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증 명하기도 힘들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이해하고 증명하는 방법까지도 말하 고 있는 것이다.

부활절

김현경 (고등부)

부활절은 크리스마스보다 화려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크리스마스 때처럼 모여서 준비하는 것도 없고 설레임도 덜하다. 그래서 그 중요성이 떨어진다라는 느낌이 있다. 하지만 이 부활절이 크리스마스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것은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 다. 그렇다면 부활절이 크리스마스처럼 화려해야 하는 것일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크리스마스의 화려함이 잘 못 됐다면 잘못됐지 부활절은 지극히 정상적으로 잘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부활절은 정말 부활절답기 때문이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탄생에 대한 기쁨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즐 기기 위한 날이 되어버렸다. 여기에 대해서 크리스천들은 오히려 슬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크리스마스는 술 먹고 노는 날, 혹은 연 인이나 친구 만나는 날로 인식된다. 나만 부활절은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은 잘 모른다. 나도 신앙이 없던 중 2째까지는 잘 몰랐 으니 말이다. 반면에 잘 알고 있는 크리스천들은 정말 크리스찬답 게 이 날을 잘 준비한다. 부활절이 되기 전 고난 주간에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기도해 힘쓰고 금식을 하기도 한다. 크리스마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 부활절이야말로 크리스천의 신앙을 되돌아 보고 더 강하게 만드는 기회를 준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부활절에 나타나는 이러한 좋은 모 습이 부활절 때에만 나타나는 것이다. 고난 주간에 기도해 힘쓰 며 경건한 모습이 부활절이 지나고 나면 잊혀지는 경향이 있다. 금식도 항상 고난 주간에만 한다. 고난 주간에 기도해 힘쓰고 경건 한 모습이 그리고 금식까지 각오하는 그러한 모습이 평소의 생활에 도 이어졌으면 좋겠다.

본·관·우·신·주·의·이·름

1. 기묘자(사 9:6)

‘기묘자’란 히브리어로 ‘분리하다, 구별하다’의 의미로써 ‘경이로움’을 나타낸다. 이 경이로움은 많은 감정이 일시적인 흥분이 아니다. 참된 경이로움은 무지에 근거 하여 새로운 것들에 대해 놀라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에 근거하여 알면 알수록 더 놀 라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참된 경이로움은 지식이 증가할 때 더욱 깊어진다.

오늘날 인간은 하나님께 만드신 세상에 대한 경이로움을 상실하고 있다. 그것은 사 람들이 세상의 과학 법칙만을 생각하고 그 법칙을 수현한 은혜로운 분은 생각하지 않 기 때문이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경이로움을 상실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경 이로움을 상실한 인간은 그 대상을 찾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죄’이다.

그러나 상실한 경이로움을 다시 회복시킬 뿐이 아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는 태초부터 계신 경이로움이며, 경이로움 삶을 사신 분이다. 우선, 그는 인격면에서 경이로우시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땅에 오신 것을 상상해 보라. 목자들이 예수의 탄생 소식을 고하였을 때, 듣는 자들이 다 기이히 여겼다(눅 2:18). 평범한 몸이 포도주가 되 는 경이로움이 있었고 평범한 제자들이 경이로운 가르침을 받고 경이로운 가르침을 전 했다. 그의 가르침의 최고의 경이로움은 그의 말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요 6:63). 거듭난 자에게 평범한 의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가르침이다. 또한 수지와 열시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죄가 만나는 장소로 바꾸어 놓은 것은 얼마 나 경이로운가? 그는 경이로운 죽음과 부활로 그 ‘기묘자’임을 확인시켰다.

예수가 ‘기묘자’임을 인정하고 그 경이로움을 스스로 드러낼 때,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영적인 감각들을 받게 되며, 우리의 속사람은 죽은 상태에서 깨어나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된다. 즉, 죄에서 해방될 수 있다. 성경은 분명 경이로움 속으로 들어오는 법을 밝 히고 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도 함과 같 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 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고전 2:9-10). 예수만이 우리의 삶을 경이로움 으로 만들 수 있다. 바로 그의 이름이 ‘기묘자’이기 때문이다.

(웨렌 W. 위어스의 지음 ‘예수의 이름’ (4))

[한국교회사] 초기의 선교정책(3)

선교지역 분할

네비우스 선교정책을 확립한 1893년의 장로교 선교 공의회는 또 하나의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바로 교파간의 선교지역 분할협정이다.

일명 '교계예양(敎界禮讓)'이라고도 불리는 이 협정은 교파별 선교부의 독자적 활동으로 인한 사업의 중복이나 불필요한 경쟁을 막고 선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합적으로 분할하자'는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이 조치는 실상 '분할'이란 말을 사용하지만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교파간 이해와 협조관계의 형성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분할정책의 첫 단계는 순회전도를 통한 전국단위였다. 물론 잘 짜여진 계획 아래 진행된 답사는 아니었지만, 이들 답사지역을 중심으로 대략의 선교지역이 설정된 것이다. 이후 분할안은 장로교와 감리교의 여섯 선교부에 의해 몇 차례의 조정이 뒤따랐으나 대략 다음과 같이 분할되었다. 즉 미감리회와 북장로회가 공동점유한 서울·평양과 남감리회와 캐나다장로회가 공동점유한 원산을 제외하면 지역별로 경기·충청·강원지역은 남감리회와 북장로회가 군 단위로 나누어 관할했고 황해·평안·경북지역은 북장로회, 경남은 호주장로회, 전라도 지역은 남장로회, 함경도는 캐나다장로회가 각각 담당하였다.

예당초 이러한 지역분할은 미개척지에 대한 미래지향적 조직로 본래 선의에서 나온 정책이었으나 선교행정이나 제정의 효율성 확대라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분할규정이 30년 이상 적용되면서 선교의 배경에 따라 교회의 성격이 고착화되는 부정적 현상도 드러났다. 이같은 선교회의 분파적 배경은 1930년대에 노골화된 지방색과 맞물려 교단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했고, 또 해방후 전개된 교회분열의 한 단초가 되기도 했다.

한편 이러한 선교지역 분할은 장로교와 감리교의 6개 선교회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다른 교단들, 이슬람계 침례교·성결교·구세군 그리고 성공회 등과의 선교지역 분할에 대한 협의가 없었고, 이들 교파는 선교지 분할 정책과 관계없이 선교하였다. 결국 장·감이외의 교회는 선교지 모색에서부터 불리한 여건을 감수해야 할 처지였다.

다음주일 전송

358장 아침 해가 돋을 때

작사, 작곡자가 알려져 있지 않은 곡이다. 그러나 이 찬송은 우리 크리스찬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햇빛을 가지고 어두운 곳을 비추어 참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슬픔과 궁핍으로 주름졌던 얼굴에 보람의 공로를 깨닫게 해 줌으로써 감사와 기쁨의 빛이 흐르게 하며, 또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이 있는 심령들에게 십자가의 능력으로 진정한 용기와 소망이 충만하여 그 얼굴이 환히 빛나도록 한다.

- | | |
|----|--|
| 1절 | 아침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리라
나도 세상 자발 때 햇빛 되게 하소서 |
| 후렴 |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하소 없고서
어둔 세상 자발 때 햇빛 되게 하소서 |
| 2절 | 새로 오는 광명을 보았기에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
| 3절 | 한편 가고 안 오는 햇빛 광을 자발 때
구한 지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
| 4절 | 빛난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

이 찬송은 한신사의 자료에 불려져 하며, 둘째 단과 넷째 단의 3번째 소절에 '햇빛 되게'의 가사 부분은 기법과 조율하게 마무리하고 다음의 '하소서'를 부드럽지만 강한 의지와 결단을 갖고 노래하면 아름다운 한신의 찬송이 될 것이다.

(찬양위원회)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이 욕 순' 자매를 소개합니다

작은 머느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작은 아들과 손주들도 모두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저도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손주들이 교회학교 행사 때마다 상을 타서 식구들을 기쁘게 합니다. 저를 교회 나왔을 때는 아무 것도 몰라서 그저 무뎠었는데, 새가족회에서 5개월 정도 지내는 동안 예수님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예전엔 인생은 죽음으로 그쳤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아무 공로 없이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기쁩니다. 아직 믿지 않는 큰 아들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욕 순(새가족부 통신원)

+ 양호실

"주의 길에는 기쁨이 넘쳐지며"(시65:11)

5교구 이장자 권사(여62세)양이 전신에 퍼져 치료 중입니다.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병이 치유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8교구 김경의 집사(여55세)남양이 간염으로 전이되었습니다. 치료 과정 중 지지 않고 병이 치유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13교구 이순자 타교 권사(여67세)뇌출혈로 쓰러져 물리치료 중입니다. 병이 치유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15교구 고경자 집사(여60세)교통사고로 입원 중입니다. 몸이 빨리 회복되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17교구 이복희 집사(여83세)간암이 전신에 퍼졌고 통증이 매우 심합니다. 통증이 완화되며 믿음으로 평안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주인이 되실 때 삶은 그의 은혜로 부요케 될 것입니다.

구역탐방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산, 망월 구역 / 구역장: 이금수, 임진자 집사



고난주간을 앞두고 드린 구역예배라 고난을 주제로 한 찬양을 많이 드렸다. 그러다 보니 준비찬송 시간은 눈물로 바다를 이루었다. 눈물에 목이 매여도 찬송을 계속 이어나갔고 안간힘을 쓰는 구역원들의 모습 속에 밝게 웃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다.

말씀 교제도 예수님의 눈물에 초점이 맞춰졌다. 예수님은 우시는 분이요, 처음부터 울기 위해 보내신 분이요,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울고 계시다. 물론 그 눈물은 우리 때문이다. 우릴 위해서요.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신 예수님은 성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다. 백성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환영하는데 왜 눈물을 흘리셔야 했는가?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앞으로 다쳐울 고난과 사람들의 배신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예언을 성취해 오셨듯이 앞으로도 예언을 성취해 나아가셔야 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지금도 눈물을 흘리신다. 우리들의 죄악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들의 배신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구역원들은 자신들도 '배신자'라고 밝혔다.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치다가 '십자가에 못박히라'고 배신한 것처럼 자신들도 예배시간과 교회성도들과 있을 때는 찬양하다가 일터로 나가면 바로 예수님을 배신하는 모습들이 있다며 고백했다. 주일과 평일이 다른 삶. 그런 삶을 살 때마다 예수님은 울고 계시리라 회개했다. 한 성도는 교회에서는 경건한 모습으로 있다가 집에서는 가족들에게 성질을 부리기도 하고 일 때문에 흥분을 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는 예수님 생각이 나다 죄를 짓게 된다고 고백하며 말면서 짓는 죄라 예수님이 더 슬퍼하실 것 같다고 했다.

사업이 망해서 작은 집으로 이사한 구역원도 있었다. 특히, 성산동과 망월동은 집값이 싸서 집 값이 비싼 곳에서 살다가 사업이 잘 안 돼서 이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다. 그 구역원은 처음에 이사를 때는 많이 속상했지만 더욱 주님께 매달리게 됐고 그 과정에서 예수님을 이해하게 됐다고 했다. 자신은 어쩔 수 없이 망해서도 그렇게 속상했는데, 예수님을 알고 있었는데도 스스로 망한 것이다.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스스로 망한 것이다. '호산나'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을 만큼 인구가 많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버린 것이다.

구역원 중의 한 명이 우리는 바보가 되어야 한다고 표현했다. 모두들 적절한 표현이라고 동의했다. 예수님도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바보가 되셨다. 조종거리가 되셨다. 하나님의 뜻과 어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바보가 되셨다. 우리도 바보가 되어야 한다. 주일과 평일이 같은 삶. 교회에서의 직장에서의 행동이 같은 삶.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는 삶. 항상 이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우시지 않을까? 생각하는 삶. 그런 삶을 살면 우리 바보가 될 수 있다. 누가 바보가 되고 싶겠는가?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 (권요섭 기자)

아이를 키우는 비결

김 영 아 (영마루 박애원 임파)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절실하게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건, 아이는 엄마의 공로로 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는 것입니다. 모두들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당연한 대전제를 잊고 내 생각이나 주와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때때로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 육아, 이 모든 것이 내가 세울 수 없는 계획인 데도 자꾸만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모든 계획들은 세상의 미련한 것일 수밖에 없고 시간 낭비였음을 고백합니다.

아기와 함께 누워서 첫 달을 보내면서 아이의 이름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자라라고 '예원'이라 지어주었고, 잠을 자지 않는 동안에는 계속 기도만 했습니다. 아나,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기가 숨은 잘 자는지, 열이 나거나 소화가 안 되는 건 아나지 등의 걱정을 하느라 잠도 잘 자지 못했지만, 성령님 역시 우리가 잠을 동안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 감사하여 참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얼마나 사랑하시면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까지 하셔서 그 고통으로 날 사셨는지! '막연히 '날 사랑하시겠지'라고 생각했던 옛날과는 달리 얼마 임종에서 느낀 하나님의 사랑은 제게 너무나 크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 생각만 하면 머리 사람 많은 지하실 안에서도 눈물이 파르르 쏟아집니다. 아기가 목을 가누고, 기고, 서고, 한 걸음 두 걸음 걷게 될 때 환호하며 기뻐하다가도, '이가 나지 않으면 어찌나'하고 또 걱정하는 제 자식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지켜보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과연 나는 잘 자라가고 있는지를 살피게 됩니다.

아기는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길러주시고 사용하여 주실 겁니다. 그래서 전 5월이전 사람들이 어미이길이라고 기념하는 것이 벌써부터 두렵습니다. 우리 아이는 하나님이나 다 길러 주셨는데 내가 기르느라 수고 많았더니 하나님의 공을 가로채는 일이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아직 말도 못하는 아기들에게도 한 주일 동안 요절을 외워주고, 성일조를 구분하게 하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가르치는 것이어찌나 저 자라는 우리 아이는, 해마다 어미이길 되면 부모가 아닌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바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아이의 그 평생이 하나님께 매인 바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김 현 옥 (유치부 교사)



"선생님, 왜 이렇게 늦었어요?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하며 아이들 보며 늦게 도착한 나에게 한 녀석이 매달리며 나머지 녀석들도 덩달아 달려들어 주렁주렁 매달리고, 나는 어느덧 아이들 힘에 휘청거려다 바닥에 주저앉아 버린다. 지난 2000년,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성격도 아니

고, 조카들한테도 '호랑이'이로, '호랑이 고도'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잔잔한 성격의 나는, 유치부 교사를 하기로 마음 먹었다. 그것은 무턱대고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처음 유치부 교사를 시작하던 해는 매주 진땀을 빼야했다. 나는 유치부에서 오래 봉사해 노련미가 넘치는 선생님이 아니었고, 아이들을 키우 본 경험도 없었으며, 그렇다고 유아교육을 전공한 유능한 선생님이 아니었다. 장난이 심한 아이, 말도 안 통하는 외국인 남매, 선생님을 유달리 좋아해서 영장불사의 아이. 이 모든 것이 내가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처럼 느껴져 난 매주 맘을 뻔뻔 흘려야 했다.

그러나 2002년, 지금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내가 주었던 사랑보다 더 많은 사랑을 내게 주는 아이들 덕분에 나의 성격이 바뀌기 시작했고, 마냥 내가 가르쳐야만 할 것 같은 아이들이 나보다 더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보며 나 자신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해주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아이들을 잘 이해하지 못해 다그치고 야단치던 나의 매마른 성격도 우리 아이들과 지내는 시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생각해보려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다.

나를 도우시는 예수님처럼 남을 도우려고 교사가 되었는데, 오히려 아이들에게서 나에게 필요한 도움을 받게 되었다.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타인에 대한 관용, 그리고 섬김을 배우게 해 주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나는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민음의 학교에서

인간의 타락

김 명 은 (유아부 교사)



올해도 어김없이 유아부 겨울 성경학교가 돌아왔다. 우리들은 한 달 전부터 여러 가지 세부계획을 짜고 몇 번의 기도회 시간을 가졌다. 우리 유아부 친구들은 잘 돌아가지 않는 입술로 하나님께 찬양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울동하고 색칠하고 풀집같이 세계 방방곳곳에 십자가의 기발도 쫓았다. 첫날 전도사님은 우리나라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왔으며 우리도 복음에 빛난 자로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저로부터 세계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세계곳곳에서 주의 나라로

사용될 줄 믿는다. 몇몇들은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이었다. 부자가 뜨거울 불 속에서 고통받는 그림을 보고 아이들은 무서워했다. 우리도 나사로처럼 고난이 닥치더라도 믿음을 지키기로 했다. 요즘 아이들 주위에는 믿음에 방해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다. 순전히 부모님의 믿음으로 유아부시킬지 을 수 있는 우리 아이들! 어릴 적부터 예수님에 대해 올바르게 배운다면 어떠한 고난이나 유혹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선생님들은 미래를 생각하며 왕관을 만들어 아이들 머리에 씌워 주었다. 초창초창한 눈과 왕관에 붙인 별들이 얼마나 반짝이던지! 드디어 성경학교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오늘의 말씀과 같은 부자와 나사로의 인형극이었다. 부자가 지옥에서 후회하며 세상에 있는 자기 형제들에게 잘못을 고조 못하게 전해달라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거절했다. 우리 주위에는 믿음 전하는 이가 많이 계시지 않은가? 부자처럼 지옥에서 후회하는 일이 없어야겠다고 느꼈다. 매년 느끼지만 아이들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신앙을 갖고있다. 겨우 4-5세밖에 안되지만 찬양하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리라라는 생각이 든다.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그들(아담과 하와)은 사단에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게 됩니다. 사단은 유혹하고, 인간은 행동으로 옮기지요. 인간의 행동에 대해 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책임을 질까요? 그 책임은 바로 하나님이나 지인입니다. 죄인을 끌개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애듯한 책임을 지십니다. 참으로 큰 은혜입니다.

인간은 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악인은 좋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간다'라는 잠언의 말씀처럼, 인간은 하나님께 범죄하면 그 마음이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아담이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 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롬 5:12).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이 땅에서 살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죄는 우리의 양심을 마비시킵니다. 성경에도 '죄인맞은 양심'이란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 많은 인간을 찾아오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 알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안타깝게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자는 영혼을 흔들어 깨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범한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죄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붙들고 노력해야 합니다. 또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를 죽여야 합니다. 우리가 깨워하면 안됩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지금은 나의 약함으로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구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내 마음도 살 때보다 훨씬 평안합니다. 주께서 가라미 고고, 시련이 생겼고, 앉으라만 앉고, 일어나라만 일어나고, 그지 하나님이나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면 되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저 그런 줄 알고 순종해야 합니다. 믿음은 결국 순종이니까요.

(권형익 기자)

모임

- 1. 장로 월요세백기도회
일시: 4월 1일(월) 세백기도회 후
장소: 교육관 109호
- 2. 안수집사회 화요일세백기도회
일시: 4월 2일(화) 세백기도회 후
장소: 교육관 109호
- 3. 안수집사회 찬양연합회
일시: 오늘~월 7일 15:30
장소: 교육관 314호
- 4. 권사 1차 월례회
일시: 4월 3일(수) 수요일 예배 후
장소: 영아부실

발세

- 1. 박하선 씨
(박예영 집사의 친정부친, 3교구 대원구) / 10일 별세, 12일 장례
- 2. 정성순 은퇴권사
(최홍진 은퇴사립집사의 부인, 최명우 집사의 모친, 15교구 사당4구역) / 20일 별세, 22일 장례
- 3. 이종국 성도
(이승훈 집사 장인, 이명희 집사의 부친, 2교구 삼성1구역) / 26일 별세, 28일 장례
- 4. 김영복 성도
(임동문 성도 장인, 김가정 권사의 부친, 2교구 삼성2구역) / 26일 별세, 28일 장례

결혼

- 1. 이현택 군(이기숙 집사, 최정자 권사의 아들, 7교구)과 백정은 양(백철기 집사, 박혜숙 집사의 딸, 상남교회) / 4월 5일(금) 13:00, 갈릴리움
- 2. 박진식 군(이규자 집사, 김소미 장 타교신도의 아들, 19교구)과 홍지영 양(홍정우 집사, 양승자 집사의 딸, 12교구) / 4월 5일(금) 15:00, 갈릴리움
- 3. 이준재 군(박호순 권사의 아들, 10교구)과 조민정 양(조철형 집사의 딸, 신일교회) / 4월 6일(토) 15:00, 야구동 신일교회 ☎2252-1155-6

권사의 전제 월례회

일시: 오늘 15:00 장소: 갈릴리움

가정 및 부부초청 신앙강좌

일시: 4월 5일(금) 14:00-18:00

장소: 교육관 2층 유치부실

주최: 7교구 연합전도회

분실을 찾아가세요

교회 내에서 분실한 물건이 있는 분은

교회 사무국으로 오셔서 찾아가세요.

감사위원회 상반기 정기감사 실시

근년도 상반기 정기감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여 각 부서의 회계는 감사표를 준비하시어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감사대상: 각 기관별 2001년도 결산 / 각 기관별 2002년도 1월분 예산

2. 감사실시기간: 2002년 2월-3월 3. 감사실시장소: 제1교육관 208호 감사위원회실

4. 제출서류: 시산표, 현금잔액표, 원장, 영수증 등 증명서류, 시제한도 또는 예금통장

새·가·족·을·한·영·합·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227	신귀순	1	루디아		234	이미혜	9	마리아	윤성의(7)
228	이성열	2	베드로		235	박경아	11	에스더	
229	장자	2	에스더		236	박재영	14	청년2부	
230	이호섭	2	베드로		237	조승희	19	대학부	송미연(12)
231	최산정	19	대학부		238	김동욱	19	청년1부	
232	고경숙	6	루디아		239	정신영	19	대학부	강민성(9)
233	이종우	7	청년2부	정미자(7)					

※ 후원교회와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문 203호 새가족 등록표를 오시기 바랍니다.

4월 주일 및 수요일 기도 담당

월	일	주일예배 (장로)					찬양예배 (민주세대)	수요일예배 (권사)	
		I	II	III	IV	V		I	II
4	7	최무길	이종석	권명옥	김영길	정운석	안병호	황선해	김근자
	14	원운철	전홍용	전홍철	김은호	이종실	권철	김순은	김희옥
	21	박영익	이아영	한승규	차신록	노광원	안성영	윤수원	최재희
	28	김구형	이창호	김종구	이병욱	오진국	원용철	장로	이계문

다음주 세백기도회 기도 담당

1(월)	2(화)	3(수)	4(목)	5(금)	6(토)	7(주일)
권명옥	저규성	오승도	허한진	문영규	이옥주	김만자

예배시간 변경안내

4월부터 수요일부 예배와

금요일찬양집의 시간이 30분

씩 늦어집니다. 따라서 4

월 3일 수요일부 예배와 4월

5일 금요일찬양집부터는 예

배와 집회가 각각 7시 30분

에 시작됩니다.

공동의회

안 건: 안수집사·권사 후보자 선정을 위한 건(件) 장 소: 본당
일 시: 오늘 4부 예배 후 대 상: 등록 세례교인

임시당회

일 시: 4월 3일 수요일부 예배 후 장 소: 당회실

교회 오시는 길



예배 안내

구분	시간	장소
주일 예배	I 오전 7:00	본당
	II 오전 9:00	본당
	III 오전 11:00	본당
	IV 오후 1:00(어린이동생의 예배)	본당
	V 오후 5:00	본당
찬양 예배	오후 5:00	본당
수요일 예배	1:00~11:00 II 오후 7:00	본당
금요일 예배	오후 7:00	본당
세백기도회	오전 5:00	본당

심·기·는·분·들

■ 위임목사 김성관

■ 사무장로

김의철	김은호	노광원	오진국	이병학
신교배장	승용장로	영희 씨	19교구장	7교구장
윤인철	최태원	원필성	강모용	오정현
신교배장	봉사위원	신교배장	7교구장	제1교육관장
이 훈	남선우	정운석	김영길	봉사위원
신교배장	신교배장	신교배장	신교배장	신교배장

■ 부목사

이종대	정현민	김동하	차병준	김병태
신교배장	신교배장	신교배장	신교배장	신교배장
서광진	정성재	이준경	박인기	여성기
신교배장	신교배장	신교배장	신교배장	신교배장
류병희	노경호	이종철	김영훈	여국진
신교배장	신교배장	신교배장	신교배장	신교배장

■ 찬양장로 김인규

정현희	김경자	송향자	신동자	윤인숙
신교배장	신교배장	신교배장	신교배장	신교배장
김옥윤	한영준	김진석	홍순애	이옥주
신교배장	신교배장	신교배장	신교배장	신교배장
김말자	인태순	최효식	김경원	조옥자
신교배장	신교배장	신교배장	신교배장	신교배장

■ 어전도사

정현희	김경자	송향자	신동자	윤인숙
신교배장	신교배장	신교배장	신교배장	신교배장
김옥윤	한영준	김진석	홍순애	이옥주
신교배장	신교배장	신교배장	신교배장	신교배장
김말자	인태순	최효식	김경원	조옥자
신교배장	신교배장	신교배장	신교배장	신교배장

■ 교정전도사 박영덕

정현희	김경자	송향자	신동자	윤인숙
신교배장	신교배장	신교배장	신교배장	신교배장
김옥윤	한영준	김진석	홍순애	이옥주
신교배장	신교배장	신교배장	신교배장	신교배장
김말자	인태순	최효식	김경원	조옥자
신교배장	신교배장	신교배장	신교배장	신교배장

■ 단기선교사

단기선교사 김기영, 단기선교사 최은아, 단기선교사 최은아, 단기선교사 최은아